

P19. 작업단계별 농업생산성 영향요인과 여성의 참여수준

Agriculture Productivities Effect Factor by Job Step and
Woman Farmer's Participation Level

최윤지*, 김경미, 이진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Choi, Yoon Ji* · Gim, Gyung Mee · Lee, Jin Young

National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농업노동은 일반근로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과 다르게 다양한 작업유형과 시간사용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의 작업단계에서 주로 참여하는 작업유형과 이러한 작업유형이 농가 전체의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명함으로써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수준을 재평가 하는 작업은 여성들의 농가경제 기여도 분석과 농업노동가치평가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투하시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오이, 시설딸기, 장미, 느타리버섯, 사과 등 5개 작목으로 총 150농가(각 작목별 30여 농가)의 부부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주요 연구결과

여성의 주된 작업은 '선별 및 포장'과 '수확'등 생산물의 마지막 손질과 관련된 작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오이 작목의 경우 여성의 주된 작업단계는 '수확'과 '선별 및 포장'이 각각 34.0%, 29.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시설오이의 선별 및 포장은 난이도와 중요도에서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까다롭고 복잡한 작업으로 평가되었으며 2작기 이상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시설딸기의 경우 '선별 및 포장'과 '수확'이 각각 45.3%, 31.3%로 76.6%의 여성이 두 가지 작업단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작업의 숙련소요기간은 1작기 이상을 필요로 하였고 중요도는 4.7로 높게 나타났다.

장미재배의 경우 '선별 및 포장'과 '수확'이 각각 39.0%, 33.9%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작기 이상의 숙련소요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이외에 순지르기, 눈따기, 접목, 지주/네트세우기 등의 작업단계에도 여성들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느타리 버섯 작업에는 대부분(77.7%)의 여성이 '선별 및 포장(건조)'과 '수확'에 각각 48.1%, 2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작업 역시 1작기 이상의 숙련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사과의 경우에는 ‘열매 속기’와 ‘봉지 씌우기/벗기기’가 각각 25.0%, 25.0%로 조사되었으며 ‘가지유인’이 10%를 차지하였다. 선별 및 포장 열매 속기 등은 작업의 중요도에서 4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업노동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는 연령더미, 정규학교 교육더미, 작목더미, 작목재배경력, 전문적인 농사교육 여부, 자격증 유무, 기계사용 여부, 주요 작업단계더미, 경작지 규모, 성장지역 더미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작업단계는 농업소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작목재배경력과 여성의 참여 작업단계 중 난이도와 중요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작업단계더미는 소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기계사용 및 작목재배와 관련된 교육과 여성이 비교우위를 갖는 작업단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기술교육은 많지 않다. 농업의 전문화에 따라 영농기술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농가를 지탱하는 최후의 노동력인 여성노동에 대한 적절한, 최소한 타부문 여성노동에 대한 보상정도가 보장되지 않는 한 농업가족의 해체는 지속될 것이며, 농업소득의 향상을 가져오는 자격을 지닌 여성농업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